

## 黃帝內經素問遺篇의 『素問六氣玄珠密語』 引用에 대한 小考

慶熙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 韓醫學古典研究所<sup>2</sup>  
白裕相<sup>1, 2 \*</sup>

### A Study on the Quotation of uwenliuqixuanzhumiyu in Huangdineijingsuwenyipian

Baik Yousang<sup>1, 2 \*</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bjective :** The subject of this paper's study is the annotation of Suwenliuqixuanzhumiyu, which is a book regarding the theory of yunqixue, as discovered in so-called Huangdineijingsuwenyipian or Yipi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nder upo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texts, and, furthermore,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pter of Suwen about yunqixue and other texts.

**Method :** Annotations are collected and reviewed based on the theory of yunqixue, and much attention is given to the analysis of estimating in which period Yipian was written.

**Result :** The annotation of Xuanzhumiyu found in Huangdineijingsuwenyipian coincides with that of the currently existing sentence in Suwenliuqixuanzhumiyu. With the publication period of Suwenliuqixuanzhumiyu as evidence, it seems that there is a lot of overlapping between that and Xuanzhumiyu since it was annotated in Huangdineijingsuwenyipian. However, since Huangdineijingsuwenyipian seems to have annotated a part of Xuanzhumiyu, it seems that it was written in a slightly later period.

**Conclusion :** The two books are published in a relatively early period, and they are assessed to be important research data for the theory of yunqixue since they include within them clinical needle techniques and other matters that are not found in the chapter of Suwen about yunqixue.

**Keywords :** Huangdineijing, Suwen, Yipian, Xuanzhumiyu, yunqixue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02-961-0326, baikys@khu.ac.kr  
Received(23 October 2017), Revised(10 August 2017),

## I. 序 論

『黃帝內經素問』의 遺篇(이하 黃帝內經素問遺篇 또는 遺篇으로 칭함)인 「刺法論」과 「本病論」은 王冰이 주석한 『黃帝內經素問』 24卷本에 빠져 있었고 이후 宋代의 新校正에서 『素問』亡篇을 보았으나 말과 이치가 비루하다고[辭理鄙陋] 평가하여 經文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明代 趙府居敬堂刊本 『黃帝內經素問』의 卷末에 부가되어 流傳되었으나 내용이 運氣學에 국한되어 있고 난해하여 『內經』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刺法論」과 「本病論」이 언제 형성되었으며 그 내용의 가치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遺篇에 담긴 運氣理論에 대한 연구<sup>1)</sup>, 刺法 등 임상에 대한 연구<sup>2)</sup>, 내용에 대한 考證 연구<sup>3)</sup>, 기타<sup>4)</sup> 등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王玉川 등의 ‘素問遺篇成書年代考辨’에서는 단지 宋代에 있었던 대규모의 문헌 수집을 근거로 이때 成書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鄒勇의 ‘素問遺篇考’에서는 劉溫舒의 저작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는 遺篇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道家의 내용 등을 그 특징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와 같이 遺篇이 기타 서적을 인용한 것에 대한 運氣學의 고찰을 통하여 遺篇의 가치와 成書 당시에 기타 서적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참고로 遺篇에 대한 것은 아니나 국내에는 『素問六氣玄珠密語』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연구가 있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는 黃帝內經素問遺篇의 내용 중 運氣學 관련 서적인 『素問六氣玄珠密語』를 인용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運氣學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고, 두 서적 간의 관계와 나아가 『素問』 運氣篇 및 기타 서적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결과적으로 遺篇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추정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黃帝內經素問遺篇의 내용을 醫學的 또는 運氣學的으로 연구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本 論

### 1. 黃帝內經素問遺篇의 出現

黃帝內經素問遺篇의 「刺法論」과 「本病論」은 현재 嘉靖年間(1522~1566년)에 간행된 趙府居敬堂刊本 『黃帝內經素問』의 卷末에 부가되어 있는데, 王冰이 762년에 『黃帝內經素問』을 注釋하여 24卷本을 완성할 때에는 經文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전해지는 王冰본인 『補注釋文黃帝內經素問』 「病能論」의 王冰注를 보면 당시에 이미 “世本即闕, 第七二篇”<sup>6)</sup>이라 하여 運氣篇 7편과 「刺法論」, 「本病論」 등 총 9편이 빠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王冰은 南朝 시대부터 유행하던 全元起의 『素問訓解』<sup>7)</sup>를 底本으로 『黃帝內經素問』을 注釋하였으므로 全元起本에도 遺篇이 빠져있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全元起本보다 이전인 282년에 간행된 『鍼灸甲乙經』의 序文에서도 “即『內經』也. 亦有所亡失.”이라 하여<sup>8)</sup> 일부 篇이 이

Accepted(14 November 2017)

- 1) 李清. 黃帝內經素問遺篇五鬱探微. 中華中醫藥雜誌. 2011. 26(2). pp.225-228.
- 2) 黃龍祥. 論素問遺篇刺法論的鍼法學術價值. 鍼灸臨床雜誌. 1996. 12(4). pp.1-3.  
黃玉燕. 素問遺篇疫病發病理論的探討.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3. 36(1). pp.14-17.
- 3) 王玉川, 梁峻. 素問遺篇成書年代考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993. 16(2). pp.10-13.  
鄒勇. 素問遺篇考. 浙江中醫藥大學學報. 2017. 41(5). pp.373-384.
- 4) 劉永明. 素問遺篇與道教醫學. 甘肅社會科學. 2008. 2(3). pp.111-114.
- 5) 윤창열. 素問六氣玄珠密語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 29(4).

- 6)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84 : 凡言所謂者, 皆釋未了義. 今此所謂, 尋前後經文, 悉不與此篇義相接, 似今數句少成文義者, 終是別釋經文, 世本即闕第七二篇, 應彼闕經錯簡文也. 古文斷裂, 謬續於此.
- 7) 全元起는 일부 醫書에서 隋代의 醫家로 보았으나 『南史·王僧儒傳』의 기록에서 당시에 侍郎을 맡고 『素問』에 주석을 하려 한 내용이 나오므로 齊, 梁 사이 6세기초의 醫家로 추정된다. 全元起本을 『內經訓解』 또는 『素問訓解』라고 하며 『隋書·經籍志』에 “『黃帝素問』八卷, 全元起注”라고 되어 있다. 현재는 내용의 일부가 宋代에 新校正한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에 포함되어 있다.
- 8)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20 : 鍼灸甲乙經序... 按, 『七略·藝文志』, 『黃帝內經』十八卷. 今有『鍼經』九卷, 『素問』九卷, 二九十八卷, 即『內經』也. 亦有所忘失, 其論遐遠, 然稱述多而切事少, 有不編次. 比按倉公傳, 其學皆出於是, 『素問』論病精微. 『九卷』原本經脈, 其義深奧, 不易覺也.

미 누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明代의 趙府居敬堂刊本 『黃帝內經素問』은 元代至元五年(1339년)에 간행된 최초의 12卷本인 胡氏古林書堂刊本을 復刊한 것이므로 遺篇은 이에서 유래하였고, 또한 胡氏古林書堂刊本の 遺編은 당시에 유행하던 傳本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로 宋 元符二年(1099년)에 간행된 劉溫舒의 『內經素問論奧』 四卷本을 들 수 있다. 『內經素問論奧』는 『素問入式運氣論奧』 三卷과 『黃帝內經素問遺篇』 一卷으로 구성되었는데, 『宋史·藝文志』에서 “劉溫舒 『內經素問論奧』 四卷”<sup>9)</sup>이라 하였고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도 “卷末別附刺法論一卷, 題曰『黃帝內經素問遺篇』”라 하여 『素問入式運氣論奧』에 遺篇이 부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sup>10)</sup>. 그러나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이 遺篇을 지금의 2편 가운데 『刺法論』만 보았고, 그마저 後人가 假托한 것으로 보이므로 『內經』의 일부인지 믿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錢超塵은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말한 遺篇이 「刺法論」과 「本病論」 모두로 보았는데<sup>11)</sup>, 胡氏古林書堂刊本을 底本으로 하여 明 成化十年(1474년)에 간행된 熊氏種德堂刊本과 明 嘉靖年間에 간행된 趙府居敬堂刊本에 이 두 편이 書末에 부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北宋의 校正醫書局에서도 嘉祐二年(1057년)

에 『補注釋文黃帝內經素問』을 간행할 때에 世間에 유행하는 遺篇을 확인하였는데, 王冰의 이름을 假托하여 注가 달려있고 말과 이치가 비루하여[辭理鄙陋] 經文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刺法論篇缺. 本病論篇缺.

新校正云, 詳此二篇缺在王注之前. 按『病能論』篇末王冰注云世本既缺第七二篇, 謂此二篇也. 而今世有『素問』亡篇及『昭明隱旨論』, 以謂此亡篇, 仍托名王冰爲注, 辭理鄙陋, 無足取者. 舊本此篇名在『六元正紀論』後列之, 爲後人移於此. 若以『尚書』亡篇之名皆在前篇之末, 則舊本爲得.<sup>12)</sup>

따라서 만약 遺篇이 後人이 假托한 것이라면, 新校正의 경우와 같이 王冰이 직접 보고도 眞僞가 의심되어 『內經』에 編入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王冰 이후에 저작되어 출현한 것일 수도 있다. 遺篇이 正史에 처음 기재된 것은 이보다 훨씬 후대로서 『明史·藝文志』에서 “趙簡王補刊『素問遺篇』一卷”이라 하였고 그 注에서 “世傳『素問』王冰注本中有缺篇, 簡王得全本, 補之.”이라 언급한 것이다<sup>13)</sup>. 여기서 簡王은 곧 朱高燾(즉위 1404~1431년)이다<sup>14)</sup>.

## 2. 『素問六氣玄珠密語』의 出現

현재 『素問六氣玄珠密語』(이하 『玄珠密語』)는 『正統道藏』에 포함되어 있는데<sup>15)</sup>, 『玄珠密語』와 관련된 최초의 언급은 『補注釋文黃帝內經素問』의 「黃帝內經素問序」에서 王冰이 “辭理秘密, 難粗論述者, 別撰『玄珠』, 以陳其道.”라고 한 것이다<sup>16)</sup>. 즉, 『素問』

9) 脫脫. 宋史上(二十五史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636.

10) 永瑤. 四庫全書總目提要.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979014#> 《素問入式運氣論奧》三卷, 附《黃帝內經素問遺篇》一卷: 『素問入式運氣論奧』三卷, 附『黃帝內經素問遺篇』一卷. 宋劉溫舒撰. 溫舒里居未詳. 前有元符己卯自序, 題朝散郎太醫學司業, 蓋以醫通籍者也. 晁公武『讀書志』云, 溫舒以『素問』氣運爲治病之要, 而答問紛糝, 文辭古奧, 讀者難知, 因爲三十論二十七圖上於朝. 今詳考其圖, 實二十九. 蓋十干起運十二支司天二圖, 原本別題曰訣, 故公武不以入數, 僅曰二十有七. 其論實爲三十一篇. 末五行勝復論一篇, 原本別注附字, 故公武亦不以入數, 僅曰三十也. 卷末別附刺法論一卷, 題曰『黃帝內經素問遺篇』. 按刺法論之亡在王冰作注之前, 溫舒生北宋之末, 何從得此. 其注亦不知出自何人, 殆不免有所依托, 未可盡信. 焦竑『經籍志』載此書四卷, 合此論爲一書, 益外誤矣.

11)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87.

12)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60.

13) 張廷玉. 明史(二十五史1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269.

14) 錢超塵은 簡王을 趙康王 朱厚煜으로 보았는데(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87), 그 이유는 아마도 趙府居敬堂刊本이 간행된 嘉靖年間(1522~1566년)이 朱厚煜의 즉위기간(1521~1560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5) 上海書店. 道藏(第36冊). 北京. 文化出版社. 1988: 이 正統道藏本에는 각 經文마다 注가 附加되어 있다.

16)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前 p.3: 黃帝內經素問序... 其中簡脫文斷, 義不相接者, 搜求經

가운데 말과 이치가 비밀스럽고 논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별도로 모아 『玄珠』를 지어서 그 道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新校正은, 당시에 『玄珠』十卷과 이른바 『天元玉冊』이라 하는 『昭明隱旨』三卷이 짝을 이루어 유행하고 있으나 모두 王冰을 假托한 책으로서 내용이 王冰의 뜻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하였다.

新校正云, 詳王氏『玄珠』, 世無傳者, 今有『玄珠』十卷, 『昭明隱旨』三卷, 蓋後人附託之文也. 雖非王氏之書, 亦於『素問』第十九卷至二十四卷, 頗有發明, 其『隱旨』三卷, 與今世所謂『天元玉冊』者, 正相表裏, 而與王冰之義多不同.<sup>17)</sup>

新校正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素問六氣玄珠密語』가 王冰의 저작으로 알려진 『玄珠』가 아니라는 점은 학계의 정설이다<sup>18)</sup>. 新校正에서는 『玄珠』十卷을 後人이 假托한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六元正紀大論」과 「至眞要大論」에서 당시의 『玄珠』十卷을 참고하여 注釋하였는데, 이는 일부 發明한 점이 있었거나 주로 運氣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新校正 당시의 書名인 『玄珠』과 다른 『素問六氣玄珠密語』 또는 『玄珠密語』라는 명칭에 대하여, 1157년경에 완성된 鄭樵의 『通志·藝文略』에서 최초로 “『元珠密語』十卷”이라 하였고<sup>19)</sup>, 『宋史·藝文志』

에서는 지금의 正統道藏本과 같이 “王冰『素問六脈玄珠密語』一卷”이라 하였다<sup>20)</sup>.

### 3. 黃帝內經素問遺篇의 『玄珠密語』 인용문 분석

#### 1) 「刺法論」의 인용문 분석

遺篇 속에는 『玄珠密語』에 대한 언급이 「刺法論」과 「本病論」 각각 한 군데씩 나온다. 「刺法論」의 관련 문장들은 아래와 같다. 현재 正統道藏本の 黃帝內經素問遺篇에는 작자미상의 注가 부가되어 있다<sup>21)</sup>.

帝曰五運之至, 有前後與升降往來, 有所承抑之, 可得聞乎刺法. 岐伯曰當取其化源也. 是故大過取之, 不及資之. 大過取之次抑其鬱, 取其運之化源, 令折鬱氣, 不及扶資, 以扶運氣, 以避虛邪也.

[注] 不及者, 當資其化源, 以補其所虧, 令不勝.<sup>22)</sup>

資取之法令, 出『密語』.

[注] 資取化源法方, 明於『玄珠密語』第一卷中.<sup>23)</sup>

年初에 大運이 이르러 交司할 때에 承하는 것이 억누를 경우의 刺法으로서 岐伯은 化源을 取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化源은 각 經의 原穴이며, 資와 取는 각각 補法과 瀉法을 말한다. 刺法은 太過年의 경우 우선 瀉法을 쓰고 만약 鬱한 것이 있으면 이어서 原穴을 瀉하고 겸하여 補法을 써서 運氣를 복돋게 하는 것이다. 資取의 法이 『密語』에 나온다고 하였고 注에서는 이 法이 資取化源法이며 『玄珠密語』의 第一卷에서 밝혔다고 하였다.

論所有, 遷移以補其處. 篇日墜缺, 指事不明者, 量其意趣, 加字以昭其義. 篇論存併, 義不相涉, 闕漏名目者, 區分事類, 別日以冠篇首. 君臣請問, 禮儀乖失者, 考校尊卑, 增益以光其意. 錯簡碎文, 前後重疊者, 詳其指趣, 削去繁雜, 以存其要. 辭理秘密, 難粗論述者, 別撰『玄珠』, 以陳其道.

17)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前 p.3.

18) 張登本の ‘王冰與玄珠密語源流考’(張登本, 中醫藥學刊. 2005. 23(4)), 荊麗娟의 ‘素問六氣玄珠密語版本流傳情況及與王冰玄珠真偽辨疑’(荊麗娟, 中華中醫藥學刊. 2010. 28(10)), 윤창열의 ‘素問六氣玄珠密語에 관한 연구’(윤창열,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 29(4)) 등에서 모두 지금의 『玄珠密語』가 王冰이 지은 『玄珠』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또한 錢超塵의 ‘黃帝內經大素新校正’(錢超塵, 李雲,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788)에서도 新校正에서 인용한 『玄珠』의 내용과 王冰注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다.

19) 鄭樵. 通志.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355020#p56>

20) 脫脫. 宋史上(二十五史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 655.

21) 新校正에서 遺篇에 王冰의 이름을 假托하여 注가 달려있다고 하였다.

22)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560367#p3>

23)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560367#p3>

『素問·六元正紀大論』에는 三陰三陽의 司天之政에 따라 각각 資取化源을 언급하였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之政... 必折其鬱氣, 先資其化源, 抑其運氣, 扶其不勝, 無使暴過而生其疾.

陽明之政... 安其運氣, 無使受邪, 折其鬱氣, 資其化源.

少陽之政... 抑其運氣, 贊所不勝, 必折其鬱氣, 先取化源, 暴過不生, 苛疾不起.

太陰之政... 必折其鬱氣, 而取化源, 益其歲氣, 無使邪勝.

少陰之政... 必抑其運氣, 資氣歲勝, 折氣鬱發, 先取化源, 無使暴過而生其病也.

厥陰之政... 必折其鬱氣, 資其化源, 贊其運氣, 無使邪勝.<sup>24)</sup>

원칙적으로 太陽, 少陽, 少陰의 太過年에는 大運의 氣를 억누르고 克을 당하는 氣를 복돋우며, 太陽, 陽明, 厥陰의 政에는 資其化源하고 少陽, 太陰, 少陰의 政에는 取其化源한다고 하였다. 化源의 補瀉法이 鬱氣를 瀉하고 鬱로 인하여 克을 받는 氣를 補하는 것이므로 化源의 資와 取가 해마다 달리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王冰은 注에서 迎而取之하는 瀉法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王冰의 主를 三陰三陽의 순서대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化源, 謂九月迎而取之, 以補心火... 化源, 謂六月迎而取之也... 化源, 年之前十二月, 迎而取之... 九月化源, 迎而取之, 以補益也... 先於年前十二月, 迎而取之... 化源, 四月也, 迎而取之.<sup>25)</sup>

여기서 해당 月들은 化源에 瀉法을 시행하는 시기이다. 化源을 取하는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遺篇 「刺法論」의 注에서 언급한 대로 『玄珠密

語』 卷一의 「迎隨補瀉紀篇」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新校正은 王冰의 注에 대하여 『玄珠密語』를 참고하여 注를 다시 부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遺篇의 刺法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運氣學 刺法의 구체적인 내용은 遺篇 가운데 「刺法論」에만 제시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氣가 鬱하여 병을 일으키는 경우에 주로 五輸穴을 중심으로 刺法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의 鬱은 주로 交司 시기에 遷正과 退位, 또는 間氣의 升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氣가 不前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間氣의 升降에서, 木이 升을 하려는데 天主가 가로막으면[窒] 木을 억눌러 鬱이 되었다가 間氣의 때가 되어 發하는데, 이때 足厥陰의 井穴인 大敦穴을 刺한다<sup>26)</sup>. 이와 같이 五臟의 陰經에서 각각 자신의 五行 속성에 해당하는 五輸穴을 刺하여 鬱發을 막으면서 升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반대로 降을 못하여 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五行을 克하는 陰經의 所出 즉 井穴을 刺하고 겸하여 表裏 관계인 陽經의 所入 즉 合穴을 刺한다. 예를 들어, 木이 降하려는데 地畤이 가로막아[窒] 鬱이 發하는 경우에는 木을 克하는 金의 陰經인 手太陰經의 井穴인 少商穴을 刺하고 겸하여 手陽明經의 合穴인 曲池穴을 刺한다<sup>27)</sup>.

또한 交司의 경우에, 이전 해의 司天이 不退位하면 새해의 司天이 不遷正하여 鬱이 되는데 이때 鬱한 陰經의 所流 즉 榮穴을 刺한다. 예를 들어, 厥陰이 不遷正하고 太陽이 다시 布正을 일으켜 厥陰이 鬱하면 足厥陰의 榮穴인 行間穴을 刺한다<sup>28)</sup>. 또한 不遷位의 기운이 布正하여 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陰經의 所入 즉 合穴을 刺한다. 예를 들어, 子午의 해에 厥陰이 不遷位할 경우에 足厥陰의 合穴인

26)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560367#p3>

27)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560367#p3>

28)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919278#p3>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263-269.

25)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512-529.

曲泉穴을 刺한다<sup>29</sup>). 또한 剛柔 二干이 자리를 잃어서 剛干이 正하지 못하면 柔干이 虛해져서 疫病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疫病으로 克을 받는 臟의 俞를 補하고 疫이 발생한 陰經 각각의 五行 속성에 해당하는 五輸穴을 刺한다. 예를 들어, 甲子年의 경우 甲干이 未正하여 土運이 실행되지 못하고 司天의 少陰도 化하지 못하는데 이로 인하여 土疫이 발생한다. 이때에 먼저 克을 받는 臟의 腎俞를 補하고 후에 足太陰經의 所注인 太白穴을 刺한다<sup>30</sup>).

각 經의 原穴인 化源을 쓰는 경우는 주로 神이 자리를 잃어서 귀신이나 邪氣가 범하는 때이다. 예를 들어, 厥陰이 자리를 잃어 人氣가 虛해지고 또한 안으로 肝이 虛하여 天氣에 感하면 魂이 위에서 떠돌게 되는데 表裏 관계인 足少陽經의 化源인 丘墟穴을 刺하고 이어서 肝俞를 刺한다<sup>31</sup>). 단, 君火와 相火의 경우에는 手太陽經이 아니라 手少陽經의 原穴인 陽池穴을 刺한다. 또한 十二臟의 相使에서 神이 자리를 잃을 경우 邪氣가 침입하게 되므로 해당 陰經의 化源 즉 原穴을 刺한다. 예를 들어, 君主之官인 心에 이상이 생기면 手少陰의 化源인 兌骨穴 즉 神門穴을 刺한다<sup>32</sup>). 즉, 五臟의 神이 자리를 잃어서 병이 발생할 경우에 주로 化源을 刺하게 된다.

『玄珠密語』 卷一의 「迎隨補瀉紀篇」에서는 五運六氣의 勝復에서 勝氣가 발생할 경우 해당 陰經의 化源을 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五行의 순서에 따라 太衝으로부터 大陵 또는 銳骨, 太白, 泰然, 台階 등의 化源穴을 자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木氣가 勝하는 경우의 刺法은 다음과 같다. 이때 迎而取之는 해당 氣가 오기 전에 미리 瀉하는 것이다.

五行六氣各有勝復，故木將行勝也。蒼埃先見於林

木，木乃有聲，震星光芒，是其兆也。又木將勝也，宮音失調，保蟲不滋，雨濕失令也。十二月先取其化源也。此謂迎而取之也，迎者於未來而先取之也，故取者，瀉也，用鍼瀉其源也，即木氣將欲勝者，即先瀉肝之源出於太衝，(左足大指本節後三寸陷者中，乃肝脈所過爲源。)先以左手按其源穴，得動氣，乃下鍼，鍼入三分，乃陽之位也。以得天氣而住鍼，留三呼，即應木之生數三也。乃四面以手彈之，令氣之鍼下，即推而進至五分，留八呼，應其木之成數八也。是引天氣而得地氣也。鍼頭似動氣相接也，乃急出其鍼，次以手捫之，此是預知木勝。瀉木肝之源也，令不剋其土也。(玄珠密語·迎隨補瀉紀篇)<sup>33</sup>

木이 장차 勝하려고 할 때에 12월에 먼저 足厥陰 肝經의 原穴인 太衝穴을 瀉하는데 자세한 刺鍼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玄珠密語』에서는 五行의 氣가 勝할 경우 그 克을 받는 臟의 化源을 補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凡資其化源者，何也。故資者，補之，取者，瀉之，當瀉其勝實補其衰弱也。假令木氣之勝，土當衰弱也，故瀉其肝源，補其脾源也。火氣之勝，金當衰弱也，故瀉其心源，補其肺源也。土氣之勝，水當衰弱也，故瀉其脾源，補其腎源也。金氣之勝，木當衰弱，故瀉其肺源，補其肝源也。水氣之勝，火當衰弱，故瀉其腎源，補其心源也。故資補其化源者，故先以左手按其源穴，得動氣乃下，針便至五分，陰分地之氣，留呼即從其五行之生數也。得地氣之動，乃抽針至三分，陽分天之氣，是謂引陰至陽曰資補化源，留呼即次從五行之成數也。故以外至內而出口瀉也，以內至外而出口補也，故以補爲資，以取爲瀉也，即勝者，取之，虛者資也。(玄珠密語·迎隨補瀉紀篇)<sup>34</sup>

五行의 氣가 勝할 경우 克을 받는 氣가 약해지

29)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919278#p3>

30)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919278#p3>

31)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718791#p3>

32)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718791#p3>

33)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379277#p5>

34)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379277#p5>

므로 약해지는 經의 原穴을 補하는데 역시 자세한 刺鍼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玄珠密語』 卷之十六의 「生稟化源紀篇」을 살펴보면, 化源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即天奇陽生造, 地偶陰生化, 即名造化也, 故陽造而陰化也, 即名造生化源也, 故造化二字, 即陰陽相生也.

且夫草木果穀花卉萬物, 即性生之宗祖, 皆是大道, 自然一氣而成也, 然後分造化也, 即以苗爲造, 子爲化也, 若以苗從子生, 子自苗成, 如此究之, 即不可窮源也, 即始於天地, 自然一氣爲初也, 當此時, 根苗齊生也, 後來苗生子, 子生苗, 故名造化也, 故以苗爲造生, 子爲化源也.

當此之時, 男女並生後來, 因交合而生人也, 即以身爲造生也, 陰氣爲化源也, 陰氣者, 即男莖物, 女牝所也, 爲化源也, 即身生陰器, 陰器生人, 因交合而成也, 如萬物苗生子, 子生苗也.(玄珠密語·生稟化源紀篇)<sup>35)</sup>

즉, ㅍ[苗]과 ㅍ[子]의 작용을 각각 造와 化라고 하고 이 造와 化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萬物이 생성 변화하는데, 사람의 경우 陰氣가 化의 근원인 化源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 化源은 좁은 의미로서 ㅍ[子]의 陰器에 해당한다.

종합해보면, 遺篇의 刺法 가운데 陰經의 原穴인 化源을 쓰는 경우는 주로 神이 자리를 잃어서 ㅍ[子]이나 邪氣가 범할 때에 刺하라고 하였는데, 『玄珠密語』에서는 『素問·六元正紀大論』의 資取化源과 같이 勝氣가 나타날 경우 補法과 瀉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化源의 의미를 經脈의 氣가 모여 있는 原의 의미뿐만 아니라 天地造化와 사람의 陰氣를 중심으로 넓은 의미로서 설명하였다.

다시 『素問·六元正紀大論』으로 돌아가 王氷注와 新校正의 注를 검토해 보면, 新校正이 현존하는 『玄珠密語』를 참고하여 注를 부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太陽司天之政에서 王氷이 “化源, 謂九月迎而取之, 以補心火.”<sup>36)</sup>라고 한 것에 대하여 新校正

은 “詳水將勝也, 先於九月迎取其化源, 先瀉腎之源也. 蓋以水王十月, 故先於九月迎而取之瀉水, 所以補火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玄珠密語·迎隨補瀉紀篇』에서 인용한 것이다<sup>37)</sup>. 단 新校正에서는 氣가 이르기 전에 먼저 取하는 시기를 한 달로 규정한 것이 추가되었으며, 王氷注와 마찬가지로 經文의 資取에 대하여 補法이 아닌 瀉法 위주로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新校正은 王氷이 三陰三陽 司天之政의 각각에 刺鍼 시기를 설명한 것에 대하여 『玄珠密語』의 배속이 옳으며 王氷의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新校正云, 詳王氷注資取化源, 俱注云取, 其意有四等. 太陽司天取九月, 陽明司天取六月, 是二者, 先取在天之氣也. 少陽司天取年前十二月, 太陰司天取九月, 是二者, 乃先時取在地之氣也. 少陰司天取年前十二月, 厥陰司天取四月, 義不可解. 按『玄珠』之說則不然, 太陽陽明之月與王氷注合, 少陽少陰俱取三月, 太陰取五月, 厥陰取年前十二月. 『玄珠』之義可解. 王氷注之疑有誤也.<sup>38)</sup>

즉, 王氷의 설명은 『玄珠密語』의 월별 배속에 따라 太陽, 陽明은 司天之氣를 瀉하고 少陽, 太陰은 在泉之氣를 瀉하였는데 少陰, 厥陰의 경우는 月의 배속 원칙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王氷注의 배속 기준을 알 수는 없으나 각 司天之政의 用藥法에서 太陰과 太陽, 少陰과 少陽 등의 ㅍ[子]를 이루어 운용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p.512.

37) 王氷.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379277#p5> : 水將勝也, 天色沉陰, 鳴鳥不語, 太虛曠黯, 陽光不治, 冷氣先至, 微音不及, 熒惑不見, 是其兆也. 於九月迎而取其化源也, 即先瀉腎之源也, 故腎之源出於太溪. (在足內踝下起大骨下陷中是足太陰所過爲源也.) 先以左手按其源穴, 得動氣, 乃下鍼. 鍼入三分, 陽之位也. 留一呼, 應水之生數也, 以手四面彈之, 令氣至鍼下, 即推而進鍼至五分, 留六呼, 應水之成數也. 是謂引天氣而接地氣也. 得氣即急出之, 即瀉腎氣之有餘, 無令傷於心氣也. 其用藥者, 即用甘以平之, 謂腎氣之勝也. 用苦全之, 補心氣之衰也. 無令食鹹物佐腎之勝也.

38) 王氷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20.

35) 王氷.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979523#p6>

36) 王氷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참고로 『素問入式運氣論奧』<sup>39)</sup>(이하 『運氣論奧』)의 「論六病」에서도 “然聖人論資取化源，補不足寫有餘，食歲穀以安其氣，食間穀以去其邪，如是則病可避也.”<sup>40)</sup>라고 하여 資取化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論治法」에서는 『玄珠』를 인용하여 取化源法の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五運之中又有必折其鬱氣，先取化源之法，『玄珠』以謂太陽司天，取九月瀉水之源，陽明司天，取六月瀉金之源，少陰司天少陽司天，取三月瀉火之源，太陰司天取五月瀉土之源，厥陰司天，取年前十二月瀉木之源，乃用針迎而取之之法也。(運氣論奧·論治法)<sup>41)</sup>

十二月에 足厥陰의 化源인 太衝穴을 瀉하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玄珠密語·迎隨補瀉紀篇』에 보인다<sup>42)</sup>. 참고로 『運氣論奧』 가운데 『玄珠密語』를 인용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論客氣」에서 十二地의 六氣 正化와 對化를 설명하면서 『玄珠』에 설명이 이미 상세하다고 하였는데<sup>43)</sup> 관련내용이 『玄珠密語·天

元定化紀篇』에 보인다<sup>44)</sup>. 「論歲中五運」에서는 大運이 一年을 주관하면서 客運이 들어올 때에 원래 六元이 還周하는 것을 『素問』에서는 一音を 감추었다고 하면서, 『玄珠』에서 이를 언급하였으며 『天元玉冊』의 내용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sup>45)</sup>. 이와 관련하여 『玄珠密語·六元還周紀篇』에서 壬辰壬戌의 客運을 나열하면서<sup>46)</sup> 마지막 少角의 注에서, 여섯 번째 마지막 六元이 다시 角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독립된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을 『素問』에서 감추었다고 하였다<sup>47)</sup>. 그밖에 「論九宮分野」에서 “其天符歲會平氣，

對化於申也，陽明所以司於卯酉者，何也，謂陽明爲金，酉爲西方，西方屬金，故正化於酉，對化於卯也，太陽所以司於辰戌者，何也，謂太陽爲水，雖有子位，以居君火對化(一本於此處云則居辰戌，辰戌屬土，故水雖土用，孟子曰水由地中行，斯可見矣) 水乃伏土中，即六戊天門，戊是也，六巳地戶，辰是也，故水雖土用，正化於戊，對化於辰也，此玄珠之說已詳矣。(運氣論奧·論客氣)

39)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윤창열, 박상영.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의 原文 중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서 正統道藏本 『素問入式運氣論奧』(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95044#p33)의 원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40)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95044#p33

41)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95044#p33

42)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379277#p5

43)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87592#p18 : 六氣司於十二支者，有正對之化也，然厥陰所以司於巳亥者，何也，謂厥陰木也，木生於亥，故正化於亥，對化於巳也，雖有卯爲正木之分，乃陽明金對化也，所以從生而順於巳也，少陰所以司於子午者，何也，謂少陰爲君火尊位，所以正得南方離位，故正化於午，對化於子也，太陰所以司於丑未者，何也，謂太陰爲土，土屬中宮，寄於坤位，西南居未分也，故正化於未，對化於丑也，少陽所以司於寅申者，何也，謂少陽相火位卑於君火也，雖有午位，君火居之，火生於寅，故正化於寅，

44)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926251#p3 : 厥陰所以司於巳亥者，何也，謂厥陰木也，木生於亥，故正司於亥也，對化於巳也，雖有卯爲正位木之分，謂陽明金對化之所，以從所生而順於司也。(玄珠密語·天元定化紀篇)

45)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95044#p18 : 申子辰歲，大寒日，寅卯未歲，大寒日，亥初交，寅午戌歲，大寒日，申初交，己酉丑歲，大寒日，己初交，此五運相生而終歲度也，然於經未見其用，以六氣言之，則運亦當有主客，以行天令，蓋五行之運，一主其氣，豈四而無用，不行生化者乎，然當年大運乃通，主一歲，如司天通主上半年之法，玄珠指此，以謂六元還周，言素問隱一音也，按天元玉冊截法，言五運之客互主一歲，則經所載者，乃逐年之主運也，明當以玉冊爲法，則其義通玄珠之說，補註亦不取之。(運氣論奧·論歲中五運)

46)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85435#p3 : 帝曰太陽之政，奈何。岐曰辰戌之紀也，太陽，太角，太陰，壬辰壬戌，其運風，其化鳴素啟拆，其變振拉摧拔，其病眩掉目暈，太角初，少徵，太宮，少商，太羽終，少角。(玄珠密語·六元還周紀篇)

47)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85435#p4 : 此一陰，『素問』中不下，即隱於還周也，此第六元復始還周也，卻至於角也，即復於始也，次有一位，即別起元頭，此第六元，丙寅生丁卯，丙申生丁酉，丁木運，故少角，卯酉陰年不及，故少也，即丁復見壬也，丁壬合其乾德，丁壬木運，復見角，

支干逆順, 氣與運相生相剋, 客勝主勝, 災化分野, 交時先後, 淫勝鬱復, 嘉祥災變各各不同, 則經與玄珠皆備見之, 審天時, 占氣候, 若符契之相合也.”<sup>48)</sup>라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玄珠密語』에 대략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 2) 「本病論」의 인용문 분석

剛干의 陽年 가운데 司天이 克하여 天刑으로 들어오는 6년을 제외한 24년을 太過年으로 삼는데, 이를 『玄珠密語』의 注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注『玄珠密語』云, 陽年三十年, 除六年天刑, 計有太過二十四年.

[注] 除庚子庚午君火刑金運, 庚寅庚申相火刑金運, 戊戌戊辰太陽火刑金運也. 此爲與其天地氣上臨中運, 不得太過者也.<sup>49)</sup>

陽年 三十年과 天刑의 개념은 『素問』의 運氣篇에 나오지 않고 단지 司天之氣의 克으로 인하여 平年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였다<sup>50)</sup>. 天刑에 대하여 『玄珠密語·天罰有餘紀篇』에서는 平氣와 같으며 勝復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51)</sup>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玄珠密語·運符天地紀篇』에서도 庚寅年

의 예를 들어 天刑을 설명하고 있으며<sup>52)</sup>, 『玄珠密語·太過運二十四法』에서는 天刑의 해에 運이 司天보다 5일 늦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였다<sup>53)</sup>.

참고로 『運氣論奧·論太少氣運相臨同化』에도 陽年三十年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sup>54)</sup> 天刑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단, 같은 편에서 “其司天與運相臨間有逆順, 相刑相佐司天則同其正, 抑運則反其平, 如是五氣平正, 則無相陵犯也.”<sup>55)</sup>라고 하여 天刑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 III. 考 察

黃帝內經素問遺篇에는 두 번 『素問六氣玄珠密語』를 언급하였는데 「刺法論」에서는 『密語』라고 하였고 「本病論」에서는 『玄珠密語』라고 하였다<sup>56)</sup>. 「刺法論」에서는 化源을 資取하는 法이 『密語』에 나온다고 하였고 注<sup>57)</sup>에서도 『玄珠密語』의 第一卷에서 이를 밝

故曰還周也.(玄珠密語·六元還周紀篇)

48)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95044>

49)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333847#p3>

5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p.270-273.

51)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650566#p3> : 天刑運六法, 共陽年三十年, 數即運當太過而司天刻之, 故當盛而不得盛也, 故非太過, 又非不及也, 故無災害, 亦無勝復, 此非陰年故也. [注] 一庚子, 庚金運太過, 子陽年, 算數加五, 何故也, 子爲坎, 其數一, 庚金運陽年, 當太過也, 爲上見少陰君火司天, 下刑金運, 火伏金盛, 不得有餘, 故非太過也, 其數從生, 故只加四, 一四共成五也, 故加五刻, 運交時, 面向中望, 庚本寄中, 只有白氣, 自庚至子乃終, 終有天見赤氣, 來刑於金氣, 即金不能傷於木, 此非陰年, 亦非太過, 故曰天刑運也.(玄珠密語·天罰有餘紀篇)

52)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715796#p3> : 庚寅中金運正商, 金得平氣也, 其名審平也, 寅爲陽, 庚主太過, 何言平氣也, 謂上見少陽相火, 司天下臨剋於金, 故天刑運, 運不能太過, 故罰盛而見平也, 其氣亦傷肝也, 即爲小災禍, 毛蟲小困, 春令清乾燥化, 九從成數, 邪化不盛.(玄珠密語·運符天地紀篇)

53)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735657#p5> : 諸運來有日, 氣運至有時刻, 故太過來, 早十三日, 不及來, 晚十三日, 平氣運與司天同日, 天刑運與司天後五日, 地刑運與司天後六日, 算數自有時刻並算法也, 一甲子, 甲土運太過, 子陽年, 數算加六故也, 甲以子爲坎, 其數一, 土運無成數, 即數五也, 五一共成六也, 是算時刻中加六刻也, 運交時, 面向寅望, 先有青氣見, 見畢, 次有黃氣, 自甲橫流至子乃終, 其氣深明別無間, 色以表上氣之盛也.(玄珠密語·太過運二十四法)

54)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95044#p3> : 太過之歲, 五運各主六年, 乃五六三十陽年也... 不及歲, 五運各主六年, 乃五六三十陰年也.(運氣論奧·論太少氣運相臨同化)

55)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295044#p3>

56) 『玄珠』 이후에 『玄珠密語』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57년경의 『通志·藝文略』이다.

57) 현재 正統道藏本の 黃帝內經素問遺篇에는 작자미상의 注

했다고 하였다. 『玄珠密語』를 살펴보면 卷一의 「迎隨補瀉紀篇」에서 五行의 氣가 勝할 경우의 化源인 原穴을 사용하는 補瀉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따라서 遺篇의 해당 부분에서 지금의 『玄珠密語』를 참고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적어도 遺篇의 注가 작성될 때에 정확히 현존하는 『玄珠密語』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資取化源은 『素問·六元正紀大論』의 三陰三陽의 司天之政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데 王冰注와 新校正의 注를 살펴보면 王冰보다는 新校正에서 확실히 『玄珠密語』의 내용을 참고하고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遺篇의 刺法을 살펴보면 五輸穴을 운용하는 다양한 경우와 함께 주로 五臟六腑의 神이 자리를 잃어 病이 발생할 때에 化源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용법은 『玄珠密語』에는 나오지 않는다. 遺篇에서는 資取化源의 기술적인 방법이 『玄珠密語』에 나온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따라서 遺篇에 나오는 刺法이 전적으로 『玄珠密語』로부터 유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刺鍼의 運用 목표와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하여 두 서적이 각각 별도의 내용을 담아서 전해져 내려 와서 공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 遺篇이 좀 더 늦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玄珠密語』를 부분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도 資取化源을 언급하고 『玄珠密語』의 資取化源法의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기타 여러 부분에서도 『玄珠密語』의 인용 내용이 보인다. 단 『密語』 또는 『玄珠密語』라 하지 않고 『玄珠』로 칭하였다.

「本病論」에서는 『玄珠密語』의 注를 직접 인용하여 天刑을 언급하였는데 관련 내용이 『玄珠密語』에 자세히 나온다. 단, 『運氣論奧』에는 天刑에 대한 내용이 없고 관련 설명만 일부 보일 뿐이다.

『素問·病能論』의 王冰注에 의하면 “世本即闕, 第七二篇”이라 하여 당시에 지금의 「刺法論」과 「本病論」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評熱病論」<sup>58)</sup>, 「腹

가 달려있는데 新校正에서 遺篇에 王冰의 이름을 假托하여 注가 달려있다고 하였다.

58)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19 : 帝曰其至何如. 岐伯曰至必少氣時熱, 時熱從胸背上至頭, 汗出手熱, 口乾苦渴, 小便黃, 目下腫, 腹中鳴, 身重

中論」<sup>59)</sup>, 「奇病論」<sup>60)</sup> 등의 經文에서 「刺法」을 언급하거나 인용하였는데 王冰의 注에서 「刺法」은 篇名으로 당시에 經이 亡失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素問·痿論』의 經文에서 「本病」<sup>61)</sup>을 언급하였는데 王冰은 역시 옛 經論의 篇名이라 하였다. 각 편들의 經文에 나오는 「刺法」, 「本病」 관련 내용은 현재 遺篇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運氣學의 刺法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환들에 대한 治法을 담고 있어서 서로 다른 책임을 알 수 있다.

北宋의 校正醫書局에서 1057년에 『補注釋文黃帝內經素問』을 간행할 때에 『素問』亡篇과 『玄珠』十卷을 모두 보았는데, 遺篇에 대해서는 辭理鄙陋하다고 하여 經文으로 取하지 않았고, 『玄珠』十卷에 대해서도 後人이 假托한 문장으로 보이며 내용이 王冰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평가하였다. 運氣篇 7편을 王冰이 補入하였으므로 『素問』亡篇은 이를 제외하고 별도로 세간에 유행하던 것이며, 新校正 당시가 黃帝內經素問遺篇을 포함하고 있던 劉溫舒의 『內經素問論奧』(1099년)이 간행될 때와 멀지 않으므로 亡篇은 지금의 「刺法論」과 「本病論」으로 추정된다. 또한 『玄珠』十卷이 지금의 『素問六氣玄珠密語』인지를 살펴보면, 新校正의 注에서 『玄珠』를 직접 인용한 부분이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20곳,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1곳에서 나오며 그 밖에 『玄珠』의 언급 없이 『玄珠密語』의 내용을 옮긴 것이 다수 있다. 「六元正紀大論」에서 『玄珠』를 인용하여 歲穀과 間穀을 설명한 것<sup>62)</sup>은 新校正에서 王冰注와 다르다고

難以行, 月事不來, 煩而不能食, 不能正偃, 正偃則咳, 病名曰風水, 論在「刺法」中. [王注] 「刺法」, 篇名, 今經亡.

59)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50 : 此久病也, 難治. 居齊上爲逆, 居齊下爲從, 勿動亟奪. 論在「刺法」中. [王注] 今經亡.

60)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85 : 帝曰治之奈何. 岐伯曰無治也, 當十月復. 「刺法」曰無損不足益有餘, 以成其疹. [王注] 疹, 謂久病也. 反法而治, 則胎死不去, 遂成久固之疹病.

61)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72 : 故本病曰, 大經空虛, 發爲肌痺, 傳爲脈痿. [王注] 「本病」, 古經論篇名也. 大經, 謂大經脈也. 以心崩波血, 故大經空虛, 脈空則熱內薄, 衛氣盛, 榮氣微, 故發爲肌痺也. 先見肌痺, 後漸脈痿, 故曰傳爲脈痿也.

62)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15 : 間穀命太者. [注] 命太者, 謂前文太角商等氣之化

하였는데 현재 『玄珠密語』에 나오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대로 三陰三陽 司天之政의 資取化源에 대한 新校正의 注는 명확히 『玄珠密語』를 인용한 것이다. 「六元正紀大論」의 六十甲子 用藥法에 대한 注에서도 18차례 『玄珠』의 내용과 비교하였는데<sup>63)</sup> 지금의 『玄珠密語』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단, 『玄珠密語』에서는 『黃帝內經』 運氣篇의 用藥法이 『素問·藏氣法時論』의 그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sup>64)</sup>은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五行의 相克 관계에 따라서 三陰三陽의 司天에 각각 순서대로 辛涼, 鹹寒, 酸平, 苦熱, 甘溫 등을 사용하고 있고<sup>65)</sup>, 新校正도 역시 『玄珠密語』를 쫓아서 運氣篇의 잘못으로 의심하였다<sup>66)</sup>. 이러한 점은 『玄珠密語』와 新校正이 運氣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素問·至真要大論』의 六氣之復에 대한 注에서 역시 『玄珠』를 인용하여 正化, 對化를 언급하고 있는데<sup>67)</sup> 이에 대하여 『玄珠密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여 新校正이 보았던 『玄珠』十卷은 현존하는 『素問六氣玄珠密語』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黃帝內經素問遺篇은 王冰이 『黃帝內經素問』을 注釋한 이후 新校正까지의 기간 동안에 출현하여 현존하는 『素問六氣玄珠密語』와 함께 공존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遺篇이 『玄珠密語』보다 다양한 刺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玄珠密語』의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玄珠密語』보다 조금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黃帝內經素問遺篇이 新校正에서 말과 이치가 비루하다고[辭理鄙陋]하여 經文으로 채택되지 못하였고, 내용도 運氣學에 국한되어 있으며 난해하여 후대의 醫家들에게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黃帝內經素問遺篇에서 『玄珠密語』를 인용한 부분을 살펴본 결과, 『素問』의 運氣篇에 담겨 있지 않은 刺法과 기타 내용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저작되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黃帝內經素問遺篇에 대한 醫學的, 運氣學的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IV. 結論

黃帝內經素問遺篇의 『素問六氣玄珠密語』 引用 부분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黃帝內經素問遺篇의 「刺法論」과 「本病論」에서 각각 『玄珠密語』의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현존하는 『素問六氣玄珠密語』의 것과 일치한다. 특히 『玄珠密語』의 資取化源 관련 내용은 『素問·六元正紀大論』의 經文과 王冰注, 新校正의 注 등에도 언급되어 있다.
2. 「刺法論」에 나오는 다양한 刺法 가운데 중요한 化源의 구체적인 補瀉法이 『玄珠密語』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遺篇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素問六氣玄珠密語』를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資取化源의 기술적 방법을 遺篇 가운데 다시 기재하지 않고 인용으로 처리하였고, 遺篇에는 『玄珠密語』에 나오지 않는 다양한 刺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서적은, 刺鍼의 運用 목표와 그 세부적인 방법이 각각 분리되어 당시까지 세간에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역시 별도로 정리하여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3. 新校正이 참고하였던 『玄珠』十卷이 비록 王冰의 저작이 아니나 현존하는 『素問六氣玄珠密語』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黃帝內經素

者, 間氣化生, 故云間穀也. 新校正云, 按『玄珠』云, 歲穀與間穀者, 此即在泉爲歲穀, 及在泉之左右間者皆爲歲穀. 其司天及運間而化者, 名間穀. 又別有一名間穀者, 是地化不及, 即反所勝而生者, 故名間穀. 即邪氣之化, 又名并化之穀也, 亦名間穀. 與王注頗異.

63)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532-544.

64) 白裕祖. 內經 運氣篇의 氣味 雲龍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 校大學院 博士論文. 2002. p.14.

65)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471988#p3>

66)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32.

67)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78 : 帝曰六氣之復何如. [注] 謂報復, 報其勝也. 凡先有勝. 新校正云, 按『玄珠』, 六氣分正化對化. 厥陰正司於亥, 對化於巳. 少陰正司於午, 對化於子. 太陰正司於未, 對化於丑. 少陽正司於寅, 對化於申. 陽明正司於酉, 對化於卯. 太陽正司於戌, 對化於辰. 正司化令之實, 對司化令之虛. 對化勝而有復, 正化勝而不復. 此注云凡先有勝, 後鈴復, 似未然.

問遺篇도 王冰이 『黃帝內經素問』을 注釋한 이후 新校正까지의 기간 동안에 出現하여 『玄珠密語』와 상당 기간 공존한 것으로 보인다. 단, 遺篇이 『玄珠密語』보다 다양한 刺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玄珠密語』의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遺篇이 『玄珠密語』의 성립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黃帝內經素問遺篇이 말과 이치가 비루하다고[辭理鄙陋] 여겨져서 『黃帝內經』의 經文으로 채택되지 못하였고, 내용도 運氣學에 국한되어 있으며 난해하여 지금까지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素問』의 運氣篇에 담겨 있지 않은 刺法과 기타 내용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저작되어 黃帝內經素問遺篇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醫學的, 運氣學的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1. Shanghai shudian. Daozang. Beijing. Wenwuchubanshe. 1988.  
上海書店. 道藏(第36冊). 北京. 文物出版社. 1988.
2. Wangbingbianzhu. Xinbianhuangdineijingsuwen. Seoul. Daeseongmunhwasa. 1994.  
王冰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3. Liu WS original work, Yoon CY, Park SY trans.. Hyeontojuhaesomunipsikungirono. Daejeon.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7.  
劉溫舒著. 윤창열, 박상영. 懸吐注解素問入式運氣論奧.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4. Zhang TY. Mingshi(Ershiwushi10). Shanghai. Shanghaigujichubanshe. 1986.  
張廷玉. 明史(二十五史1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5. Qian CC, Lee Y. Huangdineijingtaisuxinjiaozheng. Beijing. Xueyuanchubanshe. 2006.  
錢超塵, 李雲. 黃帝內經太素新校正. 北京. 學苑出版社. 2006.
6. Tuo T. Songshishang(Ershiwushi7). Shanghai. Shanghaigujichubanshe. 1986.  
脫脫. 宋史上(二十五史7).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7. Huang FM. Zhenjiujiayingjiaoz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6.  
皇甫謐. 鍼灸甲乙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8.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son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9. Baik YS. A Study on the Use of Gimi in Naegyeong Ungi-pyeon.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2.  
白裕相. 內經運氣篇의 氣味 運用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論文. 2002.
10. Wang YC, Liang J. A Study on the Time of Publication of Suwenyipian.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1993. 16(2).  
王玉川, 梁峻. 素問遺篇成書年代考辨.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993. 16(2).
11. Liu YM. Suwenyipian and Daojiao Medicine. Gansu Social Science. 2008. 2(3).  
劉永明. 素問遺篇與道教醫學. 甘肅社會科學. 2008. 2(3).
12. Yun CY. A Study on Suwenliuqixuanzhumiyu.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6. 29(4).  
윤창열. 素問六氣玄珠密語에 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6. 29(4).
13. Li Q. Huangdineijingsuwenyipianwuyutanwei. China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Pharmacy. 2011. 26(2).  
李清. 黃帝內經素問遺篇五鬱探微. 中華中醫藥雜誌. 2011. 26(2).
14. Zhang DB. A Study on the Origin of

- Wangbing and Xuanzhumiyu. Chinese Archives of TCM. 2005. 23(4).  
張登本, 王冰與玄珠密語源流考. 中醫藥學刊. 2005. 23(4).
15. Zou Y. Suwenyipiankao.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 of TCM. 2017. 41(5).  
鄒勇. 素問遺篇考. 浙江中醫藥大學學報. 2017. 41(5).
16. Jing LJ. A Study on the History of Xylographic book of Suwenliuqixuanzhumiyu and whether it is Xuanzhu of Wangbing or not. Chinese Archives of TCM. 2010. 28(10).  
蔣麗娟. 素問六氣玄珠密語版本流傳情況及與王冰玄珠真偽辨疑. 中華中醫藥學刊. 2010. 28(10).
17. Huang LX. A Study on the Academic Value of Suwenyipian Cifalun. Zhenjiulinchuangzazhi. 1996. 12(4).  
黃龍祥. 論素問遺篇刺法論的鍼灸學術價值. 鍼灸臨床雜誌. 1996. 12(4).
18. Huang YY. A Study on the Pathological Theory of Suwenyipian Yipian.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CM. 2013. 36(1).  
黃玉燕. 素問遺篇疫病發病理論的探討.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3. 36(1).
19. Zheng Q. Tongzhi. Zhongguozhexuechu Electronic Plan.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355020#p56>  
鄭樵. 通志.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355020#p56>
20. Yong R. Sikuquanshuzongmutiyao. Zhongguozhexuechu Electronic Plan.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979014#《素問入式運氣論奧》三卷、附《黃帝內經素問遺篇》一卷>
- 永瑤. 四庫全書總目提要.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chapter=979014#《素問入式運氣論奧》三卷、附《黃帝內經素問遺篇》一卷>
21. Unknown Authorship. Huangdineijingsuwenyipian. Zhongguozhexuechu Electronic Plan.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res=274717>  
作者未詳. 黃帝內經素問遺篇.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res=274717>
22. Wangbing. Suwenliuqixuanzhumiyu. Zhongguozhexuechu Electronic Plan.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res=214745>  
王冰. 素問六氣玄珠密語.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res=214745>
23. Liu WS. Suwenrushiyunqilunao. Zhongguozhexuechu Electronic Plan.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res=152338>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2006 [cited 2017 25 Jul]; Available from: URL: <http://ctext.org/wiki.pl?if=gb&res=152338>